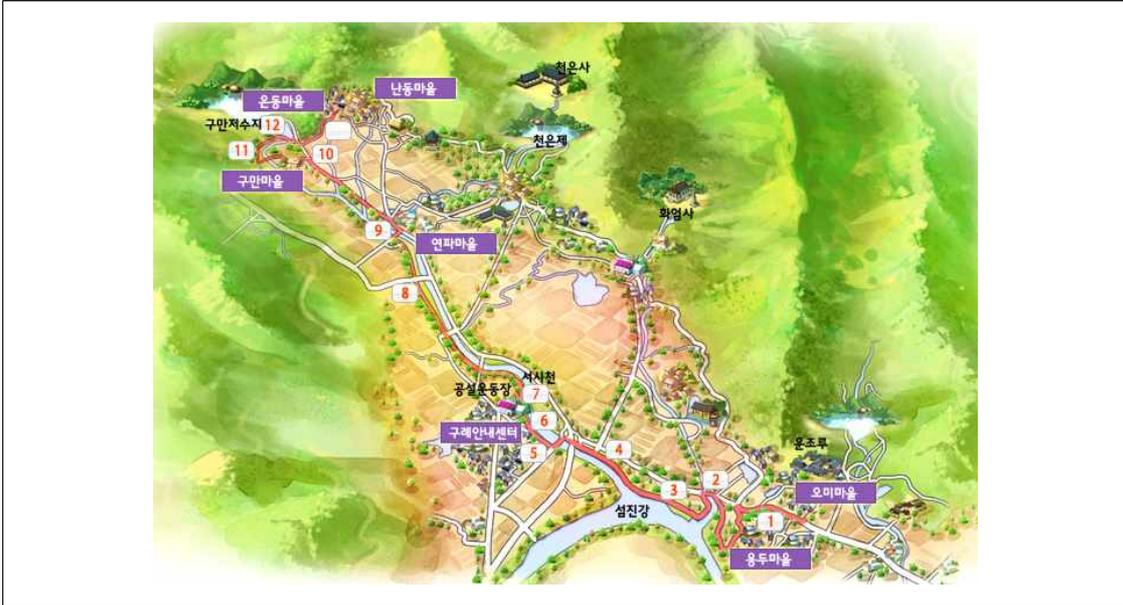


오미-난동 구간

■ 코스 지도

삶의 희노애락과 역사의 격변기를 겪으며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코스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2	용두마을	용두마을과 구례 가야문화	민속자료
3	용호정 초입	일제강점기의 시인과 화가들의 울분	민속자료
4	서시천 수중보 어도	섬진강 수달과 수중보 어도 이야기	설화
5	서시천	서복, 서시천이야기	생태
6	구례5일장	구례읍내 전통장	생태
7	여순사건 위령탑	여순사건의 비극 (새미골의 비극)	
8	지리산둘레길 센터	섬진강 철새와 서시천 꽃길	생태
9	선월마을	선월마을 유래와 흔적 없는 고인돌이야기	민속자료
10	연파삼거리	연파5일장이야기	생태
11	구만마을	구만마을 건너뜰에 있었던 성원촌 설화	민속자료
12	세심정	삭녕 최씨문중 이야기	민속자료
13	우리밀 체험장	구례 우리밀 역사와 체험장, 풍악을 울리지 않는 금성재 설화	마을정보
14	운동마을 초입	온천 수맥의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골 설화	마을정보

1. 구간 소개

구례로 가는 차표를 끊었다. 예로부터 삼대삼미, 즉 세 가지가 크고 세 가지가 아름다운 땅이라 불리었던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 구례들판의 커다란 세 가지가 있고, 수려한 경관과 풍족한 곡식, 넉넉한 인심의 세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

이 삼대삼미를 한꺼번에 느끼기엔 구례의 지리산 둘레길은 제격이다.

특히 오미와 난동을 잇는 길은 멀리 노고단을 바라보며 서시천과 섬진강을 따라 걷는 길이다. 구간이 다른곳에 비해 길기는 하지만 거의 평지로 이루어진 길이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

꽃길로도 유명한 이 길은 봄엔 벚꽃으로 여름엔 원추리 꽃 갈아입고 장관을 이룬다.

구례5일장의 넉넉한 인심과, 섬진강의 수달과 함께 걷는 길. 그 길 위엔 혼불의 작가 최명희 선생님의 선조들이 살았던 조선시대 세도가 삭녕 최씨일가의 이야기가 있고, 일제시대 울분과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는 용호정도 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비롯해 사라진 옛 흔적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떠나볼까.

2. 온동마을 초입

2차선 차도를 걷다 작은 마을을 만난다. 마을 앞 표지석엔 온동마을이라는 이름보다 더 큰 글씨로 온수동(溫水洞)이라는 한자가 쓰여 있다. 온수동, 한글로 풀이하자면 온수골. 즉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골짜기란 뜻이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골짜기라면, 이 마을에 온천이 나오는 걸까. 그렇다면 마을 앞에 커다란 간판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둘레길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선뜻 마을 안으로 들어가기도 망설여진다. 이런 저런 호기심으로 마을 앞을 서성이는데 때 마침 만난 마을 어르신으로부터 온수골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래전 온동마을 건너편의 '골룡계'라는 골짜기 논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다고 한다. 그 물로 몸을 씻으면 금세 피부병이 나올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온천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각지의 나병환자들이 몰려들어 인근에 문동골이라는 나병환자들의 마을까지 형성하게 되었다. 나병이 마을에 전염될까봐 고심하던 온동마을 주민들은 결국 온수가 나오는 구멍을 솔뚜껑으로 덮고 돌과 흙으로 묻어 버렸다. 그 후 전국에서 밀려오던 나병환자들의 발길은 수년이 흐르면서 서서히 끊어져 버렸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리산 온천랜드로 유명한 산동면이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듯하다. 그래서인지 근래 들어 몇몇 온천 개발 사업자에 의해 예전에 덮었던 온천 수맥을 다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주변일대를 파 보아도 온천수는 나오지 않았다.

그 어딘가에 묻혀있을지 모를 솔뚜껑을 상상해본다. 마을 건너편엔 돌로 쌓은 탑. 조탑이 있다. 이는 풍수지리상 떠나가는 배의 형국이라 하여 그 돛대 자리로 하여금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탑이다.

신기하게도 이곳의 조탑은 솔뚜껑을 닮아있다. 물론, 모양뿐 만은 아닐 것이다. 마을 앞의 조탑과 온천수를 막은 솔뚜껑 모두는 조용한 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같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3. 우리밀 체험장

구만 저수지와 구만마을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우리밀 체험관. 탁 트인 전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밀’이라는 다소 낯선 이름에 걸음을 멈춘다.

‘우리나라에도 밀이 생산되나?’

소비되고 있는 밀의 99%가 수입산 밀이니 언뜻 의아해하게 생각되기도 한다.

작지만 1%의 우리밀을 지키고 있는 것이 구례의 우리밀 사업이다. 우리밀 체험관은 광의면 일대의 너른 밀밭, 그리고 구만마을에 있는 우리밀 가공공장과 함께 우리밀의 명맥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1984년 정부의 밀 수매 중단 이후 우리밀 종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때, 우리밀의 첫 파종 이후 광의면 일대엔 우리 고유의 밀밭이 점점 넓어지고. 또한 구만마을에는 국내 유일의 우리밀 전용 제분공장이 있는데, 1992년 건립되어 세 번의 준공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가공공장으로 발전했다. 2004년부터 우리밀 웰빙 건빵과 전병, 새싹 차, 우리밀 국수 등 우리밀로 만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밀이 생산되고, 가공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 수입 밀을 당연히 생각하고 먹어온 것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진다.

우리밀과 더불어, 이곳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옛이야기가 숨어있는데, 한때 이곳엔 ‘금성재’, 즉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야 했던 고갯길이 있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지금은 사유지가 되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옛날엔 이곳에서 구만마을로 내려가는 고갯길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 고갯길 아래엔 ‘성원촌’이라 불리었던 ‘삭녕 최씨 가문’의 마을이 있었는데, 당시 ‘최씨 가문’은 당대의 세도가로서 권세가 대단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지방 관리들은 가마나 말에서 내렸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넘을 때에는 풍악소리는 물론 고성을 울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풍악소리를 금하던 재’, 즉 ‘금성재’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최씨 가문의 성원촌도, 금성재도 사라지고 옛 이야기만 전해오고 있을 뿐이다.

4. 세심정

지리산 자락을 배경으로 너른 들판이 펼쳐지고 정자 앞으로는 서시천이 흐른다. 세심정에 들어서면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데, 그래서 ‘마음을 씻는 정자’라는 뜻의 세심정이라는 이름이 썩 어울린다. 비록 온천과 저수지 개발 등으로 서시천의 수량과 수질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섬진강 수달이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른다. 도시에서 찌든 마음의 때를 서시천에 흘려보낸다.

세심정은 조선시대 삭녕 최씨 문중의 미능재 최상중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지은 정자인데, 시를 좋아하고 풍류를 즐기던 시인 묵객들이 자주 찾던 곳이다. 실제로 그 풍류의 흔적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정자 앞의 넓은 반석엔 오래 전 기둥이 박혀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시인 도연명의 고사에서 유래했을 법한 ‘취석’(醉石)이라는 글씨와 낚시터를 뜻하는 ‘조대(釣臺)’라는 글씨가 해서체로 바위에 새겨져 있다.

서시천 주변의 반석에 올라 마치 고고학자라도 된 냥, ‘취석’과 ‘조대’가 새겨진 바위를 찾아본다. 기둥이 박혀있던 흔적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취석이라는 글자를 찾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바위에 새겨진 ‘취석’이라는 두 글자를 찾은 순간,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고 말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대’라는 글자는 끝내 찾지 못했다. 인근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말씀으로는 예전에 강에 높게 오른 바위가 있어 그곳에서 낚시를 했었는데, 하천 정비로 인하여 사라졌다고 한다. 그 바위가 ‘조대’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며 단념하지만, 아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취석이라 새겨진 글자에 누워본다. 아름다운 이 계곡엔 양반들만 있지는 않았으리라. 봄철 못자리를 만든 마을 주민들과 어린아이들도 물놀이를 하고 화전도 구워 먹으며 농사의 힘든 노고를 잊기 위해 이곳을 찾았을 것이다.

서시천의 맑은 물소리와 지리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자연스레 눈이 감긴다.

5. 구만마을

멀리 우리밀 제분공장과 함께 작은 마을이 보인다. 돌레길은 구만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에 멀리서 마을을 바라본다. 차일봉에서 뻗어 내려온 지리산 줄기가 까치산까지 흘러와 마을을 감싸고, 마을 앞으로는 굽이굽이 서시천이 흐른다. 원경으로 바라보는 마을은 그래서 더욱 지리산이 품고 있는 마을답다.

옛 기록에 의하면 구만마을의 ‘구만(九灣里)’은 아홉 물굽이를 뜻하는데, 서시천의 상류로부터 아홉 번째로 굽이치는 곳에 마을이 위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논을 넓히고 저수지를 만들면서 서시천의 물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 옛날 아홉 굽이를 휘돌아 흐르던 서시천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서시천의 옛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듯이, 구만마을 건너편에 있던 성원촌도 지금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중기 ‘삭녕 최씨’문중의 미능재 최상중 선생이 터를 잡은 이후 5대에 걸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마을이었다고 한다.

이곳 성원촌 터에도 최씨 집안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오는데 그 이야기가 사뭇 흥미롭다.

(최씨 주민1) “이거 절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 시끄러워 살 수가 있나.”

(최씨 주민2) “아, 그래서 요 며칠 전 까치절 중들을 불러다가 내가 혼쭐을 냈는데 말이야.”

(최씨 주민1) “그런데도 이래? 아무래도 그 절을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원”

최씨 집안이 살던 성원촌의 맞은편 산 속엔 까치절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성원촌 사람들은 그 절에서 나오는 소음이 항상 귀에 거슬렸다. 관직에 있던 양반들도 성원촌을 지날 때 풍악소리를 금했다고 하니, 세도가로 이름을 날렸던 최씨 집안의 입장에서 까치절의 소음은 얼마나 못마땅했을까. 결국 성원촌 사람들은 그 절을 없애기로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까치절의 스님들은 힘없이 쫓겨나지 않겠다 다짐하며 최씨 일가를 망하게 하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까치절의 스님 가운데 도사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뽑아 최씨 가문의 집들을 드나들게 한다.

(도사로 분한 스님) “이 마을 뒷주령의 산은 지네가 살아서 꿈틀거리며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가문이 더욱 번창하고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신다면, 이 지네형 산세의 기운을 더욱 활기차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네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부근에 물레방아를 놓아야 합니다.”

최씨 일가는 도사로 위장한 스님의 말에 솔깃하여 물레방아를 놓지만, 그 후 성원촌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재산이 늘기는 커녕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최씨 일가엔 악재만 생겨났다. 결국 그토록 당

당하던 최씨 가문은 급속도로 쇠퇴하여 30여년 만에 망해버리고, 성원촌은 영영 역사의 뒤편 길로 사라지고 만다.

아홉 굵이의 옛 서시천과 최씨 가문의 성원촌, 까치절과 지네 형국의 산세, 그리고 물레방아 까지...

이 사라진 모든 것들을 위로 땅거미가 조용히 내려 앉는다.

6. 연파삼거리와 연파마을

마을 구판장은 고사하고 인적조차도 드문 제방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야 하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곳 연파마을에서 구해야 한다. 연파마을은 광의면의 18개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면사무소를 비롯해 농협, 상가 등이 있는 면의 중심지이다.

연파마을은 광의면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일찍이 순천과 남원을 이어주는 중간지점이었기에, 많은 상인들과 과거 보는 유생들, 귀향 가는 양반 등 다양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곳이다. 특히 연파5일장은 하동포구와 함께 1800년대부터 시장이 열렸던 곳으로 당시에는 곡물, 어물, 축산물과 더불어, 특히 장작 등의 화목 거래가 활발하여 지금의 광의 우체국 앞 일대에서 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1960년대엔 지금의 면사무소 자리로 이전하여 20여개의 각종 상점들과 주점, 식당들이 들어섰고, 한때는 도축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군내버스 운행이 증가되고 면사무소가 신축하여 5일장 자리로 이전하면서, 1989년 연파 5일장은 문을 닫게 되었다.

비록 연파장터는 사라졌지만, 장터가 있던 자리엔 마을 쉼터가 생겨 여전히 만남의 공간이 되고 있다. 특히 쉼터 앞에 서있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눈에 띄는데, 이 나이 많은 느티나무엔 이름이 있다고 한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 나무를 오랜 친구처럼 '장동지'라고 부른다.

사실 친구라는 뜻으로 동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 옛날 장씨 성을 가진, 동지(同旨) 벼슬을 지낸 사람이 이 나무를 심어서 '장동지'라 하였고, 이 '장동지'라는 이름을 따라 느티나무가 내려다보는 서시천과 천은천이 합류하는 지점을 '장동지소'라 불렀다. 해방 당시까지 장동지소는 수심이 깊고 물이 맑아 마을의 수영장으로 이용되었고, 느티나무 그늘 아래의 깨끗한 암벽은 천혜의 쉼터였으나 해방 후 제방 축조로 인하여 매몰되고 말았다. 아직까지 5일장과 장동지소가 남아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돌레길을 걷는 이들의 편안한 쉼터로 충분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다.

7. 선월마을

광의면의 연파마을과 용방면의 선월마을 사이로 서시천이 흐른다. 둘레길은 서시천을 가로질러 두 마을을 잇는 다리인 광용교를 건넌다.

다리를 건너도 한동안은 서시천을 따라 계속 걷게 된다. 선월마을 앞에 서있는 마을의 표지석이 고풍스러워 보인다.

선월마을은 원래 ‘강변촌’이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불리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마을의 형국이 배를 닮았다 해서 ‘선월’이라 개칭하게 된다. 선월마을은 용방면에 속해 있지만 광의면의 중심지인 연파마을과 인접해 있어 생활권은 광의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강변촌이라는 애초의 이름처럼, 동쪽의 하천 제방이 마을을 감싸고 있을 뿐 선월마을의 삼면은 허허벌판이다. 흙 갈이를 하여도 마을 근처의 논밭은 척박하여 가뭄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서시천을 따라 길을 걸으면 소와 돼지, 오리 등을 키우는 농장과 오이 재배를 하는 하우스를 자주 만나게 된다.

한때는 선월마을 옆으로 고인돌로 추측되는 거대한 암석이 5-6개씩 여러 곳에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앙 고적지 사료에 ‘광석총 지석묘군’으로 등재되었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생과 학자들의 답사도 잦았다.

하지만 1975년 경지정리 사업으로 모두 매립되어 현재는 고고학 문화재가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리산주변의 역사적 자료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8. 지리산둘레길 구레센터

서시천을 따라 길게 이어져있는 제방길이 지루해질 무렵, 구레 공설운동장과 지리산 둘레길 구레센터에 도착한다. 마치 마라톤의 중간 지점에 도달한 듯 많은 둘레꾼들이 둘레길 센터를 찾는다.

2011년 10월에 개관한 둘레길 구레센터는 구레 지역의 77Km에 이르는 둘레길 구간을 관리 운영하는데, 단순한 둘레길의 안내와 유지 관리에 머물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둘레꾼들의 교류 및 공정여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리산 둘레길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구레센터 앞으로 흐르는 서시천에는 매년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온다.

비오리, 흰뺨 검둥오리, 천둥오리, 큰고니 등이 주된 손님들이고, 백로와 왜가리는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새이다. 특히 겨울 철새들은 이 곳 방죽 근처와 섬진강 곳곳에서 번식을 하며 겨울을 난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서시천의 물고기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센터를 가로지르는 둘레길을 따라 구례군에서 뱃나무와 원추리를 심었는데, 봄에는 섬진강 벚꽃 축제가 열리고, 원추리 꽃이 피는 7, 8월엔 꽃길을 걷기 위해 인근의 주민들이 자주 찾는다. 구례군에서는 매년 원추리 꽃길 건강 걷기행사를 하고 있는데, 약 3.5km 구간으로 원추리 꽃이 피는 7월에 주민들이 참가하여 걷기행사가 열린다.

구레센터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재미는 센터 옥상전망대에 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센터 옥상 전망대에 오르면 지리산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망원경도 비치되어 있어 노고단과 지리산 구석구석을 눈앞에서 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9. 여순사건 위령탑

길을 걷다 서시천 체육공원 안에 있는 낮은 조형물을 만난다. 가까이 다가가 조형물에 쓰여 있는 한자를 천천히 읽어본다.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 구례문화원의 우두성 원장님은 위령탑 앞에서 구례에서의 여순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너무 희생이 많았습니다. 여순사건 때 구례의 한 700명 정도가 희생되었는데, 구례의 똑똑한 사람은 그때 거의 다 희생되고, 좌익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6.25가 끝나고 이북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구례가 초토화되었어요. 그때 사상이 뭔지도 모르던 일반인들도 희생이 많이 됐죠. 당시의 구례의 소위 지식층의 거의 90%가 여기에 연루되어 희생되거나 이북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구례가 발전이 더딘 것도 그때 당시에 소위 구례를 이끌었던 지식인들이 다 어렵게 되고 그 가족들이 너무 비참하게 되고, 그래서 구례가 발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에서 시작된 14연대의 반란은 삼시간에 전라도 각지로 번졌는데, 특히 이곳 구례는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곡성, 남원 등지로 연결되는 길목이기에 곧바로 반란군에 의해 장악된다. 결국 이로부터 지리산과 구례 지역에 깊게 패어있는 현대사의 비극, 그리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 좌익과 우익의 전쟁이 시작되고 만다.

흔히들 ‘여순반란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반란의 주체로 오해를 받아 현재는 ‘여수 순천사건’ 또는 ‘여순사건’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좌익과 우익의 대결 속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이들, 그들에게 이념은 어떤 의미였을까? 당시 좌익으로 기울던 많은 지식인들과, 이들과 싸워야 했던 이름 모를 군경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죄 없이 죽어야했던 수많은 민간인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이념이라도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2008년부터 매년 10월 이곳에선 ‘여순사건 구례지역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지낸다. 이념을 넘어 역사의 질곡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는 기억되어야 하고,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역사의 진실은 계속해서 규명되어야 한다.

위령탑에 새겨져 있는 이원규님의 시를 소리 없이 읽어본다.

*그리하여 지리산 노고단이 환하게 바라보이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위령탑을 세우나니
원혼들이시여, 원혼들이시여!
이제 그 모든 한을 풀고 고이고이 잠드소서.*

10. 구례 5일장

길가에 좌판을 펼쳐놓고 안방인 냥 앉아계신 시골 할머니들의 모습이 편안해 보인다. 각종 생필품을 비롯해 지리산에서 난 약재와 산나물, 그리고 해산물까지 장터엔 없는 게 없어 보인다. 다양한 상품을 늘어놓은 채 타지에서 온 손님들과 흥정을 하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져 한참 동안 구례장터를 기웃거린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기구와 칼 등을 만드는 덕암 철공소 앞에서 화로에 달궈지는 칼을 신기하게 구경한다.

구례읍내장이라고도 불리는 구례장은 3일과 8일에 열리는 5일장이다. 이곳 구례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골 장터가 5일장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5일장은 조선 초기 열흘 간격으로 열리던 장시가 임진왜란을 거치며 5일 간격으로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열흘 간격이 닷새 간격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 바로 보부상이다. 조선시대 보부상들은 생산된 물품들을 짊어지고 시장과 시장을 옮겨 다녔는데, 그에 알맞은 기간이 5일이었던 셈이다.

구례장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씨앗을 파는 아주머니와 손님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몰래 엿들어본다.

“해바라기 씨도 있구먼. 해바라기, 아주까리, 마. 이거 직접 다 따오시는 거예요? 아, 이걸 시골 엄마들이 받아오는 거지. 이거 수세미? 수세미. 수세미는 지금 심어가지고 안되는디. 수세미는 비가 자주 오면은 잘 나지. 비가 안오면 안나지. 지금 심어도? 이걸 썩갠, 도라지. 내가 아는 건 깨 밖에 없네? 시골에서 나온 것. 이걸 제주도에서 나온 거. 저건 회사에서 나온 거. 이거 한 종지로 해가지고 종지로 팔아. 이걸 고수. 이거 맛이. 약간 노릇내 나. 스님들이. 안녕하세요. 이거 고수 여기서 사가지고 심었더니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해서 얼마? 한 까치에 이천원. 이걸 한 까치라고 해. 알타리? 여거 삼천원 여가 이천원...”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골장터의 정겨움에 흠뻑 빠지고 만다. 대형 할인마트의 편리함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요즘이기에, 재래시장에서 풍기는 사람냄새가 참 좋다.

11. 서시천

오미-난동 구간의 지리산 둘레길은 서시천을 따라 걷는 구간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걷는 내내 서시천과 함께 한다. 구만 저수지에서 서시천이 섬진강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대부분을 제방을 따라 걷고 간혹 서시천을 건너는 다리를 걷기도 한다. 어찌 보면 구례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 서시천을 구례의 젓줄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

마을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지리산에 불로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서불이라는 이름의 사신을 지리산으로 보내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했다고 한다. 서불은 아홉 척의 배를 이끌고 섬진강을 지나 이곳 '서시천'을 거슬러 지리산에 들어갔지만, 끝내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서시천을 따라 내려와 제주도 한라산으로 떠났다. 진시황의 사신으로 왔던 서불의 이름에서 불市자는 한자로 시市자와 외견상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기에 서시로 잘못 전해졌고, 서불이 왔다 갔던 이 강을 서불천이 아닌, 서시천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 이야기가 단지 구전일 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서불이 아홉 척의 배를 이끌고 서시천을 거슬러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서시천의 규모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옛날 서시천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례문화원의 우두성 원장님은 이렇게 설명해주신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1960-70년대 무렵만 해도 서시천에 여름에 수백 명의 사람이 나와서 오후에는 여름에 목욕을 하고 아이들이 손으로 고기를 잡고 그랬던 곳이에요. 지금 이 서시천이 저기 보면 저 발까지가 서시천 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독을 쌓아서 서시천이 아주 좁게 됐는데, 원래는 저쪽까지 서시천이었고, 자연제방이지요, 저기가. 그러니까 서시천이 굉장히 넓은 걸 군데군데 독으로 막아서 수로 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쪽 따라오면서 보면 깊은 데가 없잖아요. 다 얕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살 수가 없죠..."

"...70년대 중반까지는 여기서 물새우를 잡아서 구례시장에 팔고, 갖가지 수초도 뜯어가지고 시장에서 팔고 그런 상행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에서 구만제에서 수위가 만들어지고, 산동온천이 개발되면서 수량이 적어지고 물이 썩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불과 사오십년 사이에 서시천의 풍경이 이렇게 변한 것이다. 앞으로 사오십년 후에 서시천은 또 어떻게 변할까. 예전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금씩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지리산과 둘레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들과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한다.

물론 그 방법이 쉽지는 않겠지만...

12. 서시천 수중보 어도

열핏 보면 놀이동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커다란 물고기 인형이 서시천 가에 세워져있고, 그 앞에 수중보가 설치되어있다. 이 수중보는 하천의 수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물고기의 길 즉 '어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

실제로 이 수중보가 만들어지기 전의 서시천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웠다고 한다.

시멘트로 채워진 강둑 대신에 밤 밭과 미루나무 숲이 펼쳐져있었고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서 소를 먹이거나 수영을 즐겼다. 물론 서시천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이 수중보를 만들었겠지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런 걱정이 드는 건 아마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수달이 아직 이곳 서시천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달은 인위적인 방해가 없는 곳, 깨끗하며 먹이가 충분한 곳에서만 살 수 있기에 건강한 자연환경의 지표가 되는 동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달을 보호하게 되면 수달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종들의 서식 환경도 자연스럽게 개선되기 때문에, 그 보호의 효과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된다.

수달이 멸종위기까지 가게 된 데에는 환경의 변화가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의 무차별적인 포획도 무시 할 수 없었다.

과거 고려시대부터 중국의 조공물품에 항상 들어가 있던 '수달가죽'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수달을 잡는 전문 사냥꾼들에게 '왕명'을 내릴 정도였다.

'왕명'을 받은 사냥꾼들은 이 곳 구례는 물론이요 제주도까지 내려가 수달을 사냥했다.

문제는 이 사냥꾼들이 마을에 입히는 피해였다. '왕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했다. 심지어 관아에서도 손을 쓸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들 횡포를 참다못한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급기야 강에 있는 '수달'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기 이른다. 마을에 인접한 강에 '수달'이 사라지면 자연스레 '사냥꾼'들의 발길이 끊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 수달들은 점점 자리를 잃어 갔던 것이다.

서시천의 '커다란 물고기 인형'을 과연 섬진강 수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멀리 섬진강을 바라보며 어디선가 뛰어놀고 있을 수달들을 떠올려본다.

13. 용호정

이곳 솔숲을 따라 100여 미터를 들어가면 신세계를 만난 듯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놀라게 된다. 백운산에서 내려온 작은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섬진강이 햇볕에 반짝이고, 이를 소나무로 둘러싸인 용호정에 앉아 운치 있게 바라본다. 용호정과 섬진강변 주위엔 자연이 빛은 기암절벽이 펼쳐지는데 특히 용의 머리를 닮아 용두바위라 불리는 커다란 바위도 볼 수 있다. 용두바위는 가뭄이 드는 해에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었고,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신기하게도 비가 내렸다고 한다. 용기를 내어 용두바위로 올라서면 구례의 전경과 섬진강 수계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렇듯 그림 같은 풍광이 한눈에 펼쳐지는 이곳 용호정은 옛 선비들이 풍류만을 즐겼던 장소는 아니었다.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직후, 구례 지역의 저명한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매천 황현 선생은 나라 잃은 슬픔을 담은 '절명시'를 남기고 월곡마을에서 자결하기에 이른다.

매천 선생을 따르던 권봉수 시인, 오병희 시인, 이병호 시인들은 이 같은 선생의 뜻을 이어받는 모임을 열기 위해 '용호정'을 세우자는 데 뜻을 모았고, 구례 지역의 '일흔 세곳의 문중'에서는 자발적인 기부가 진행되었다.

1916년 이곳에 용호정이 세워지고 망국을 한탄하며 시와 노래로 한을 달래는 '시계'를 열게 된다.

일제의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시계'를 열었는데 이 '시계'가 열릴 때는 모두들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 이 근처가 하얗게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용호정 시계'의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어 매년 6월에 시 낭독회와 경시 등의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

14. 용두마을

좁은 마을길을 따라 걷는다. 낮은 담 너머로 보이는 시골집의 풍경이 친근하다. ‘오미-난동’ 구간의 지리산 둘레길 중 유일하게 마을을 관통하며 걷는 길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리산 마을의 포근한 정취가 흠뻑 느껴진다.

용두마을은 글자 그대로 용의 머리를 닮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지리산의 용맥이 노고단 형제봉을 경유하여 내려오다가 섬진강에 이르러 머물렀는데 그곳이 용의 머리 부분이라 하여 용두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하며, 용호정 옆에 있는 커다란 용두바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한다. 마을이 형성되기 전엔 섬진강물이 용두바위에까지 넘쳐 각처의 상선들이 이곳을 왕래했는데, 배가 들어오는 곳이라 하여 ‘배틀재’라고도 불렀다.

또한 용두마을에서는 가야시대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다. 1980년대에 농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주로 후기 가야인 대가야 시대의 토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해들은 바로는 국보급의 유물도 이곳 용두마을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국보급의 유물은 이를 우연히 보게 된 개인 수집가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넘겨졌는데, 사실 이는 국보급 보물이었던 것이다.

가야시대의 유물은 용두마을과 더불어 대산리와 갑산리 등 구례 전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구례지역이 가야 문명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아닐까 한다.

신라와 고구려, 백제에 비해 가야 문화는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연구와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용두마을의 그 어딘가에 가야시대의 유적들이 묻혀있을 것이고, 그 중에 국보급의 유물도 있을 것이다.

혹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어디쯤에도 가야의 국보급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